

영남지역 청동기문화의 특질과 그 형성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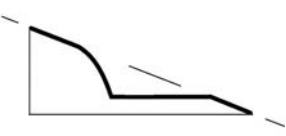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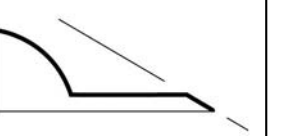
이재현(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1. 머리말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 위치하는 영남지역에서는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진한과 변한으로 불리우는 정치체가 성장하였고, 철기와 함께 독창적인 청동기문화를 꽃피웠다. 이 지역의 청동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편년과 전개양상에 대한 고찰을 비롯하여 유문동과, 동모, 안테나식동검, 동물형대구, 동경 등의 개별 유물에 대한 연구 등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영남지역 청동기문화의 특질과 그 형성배경에 대하여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개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영남지역 요령식동검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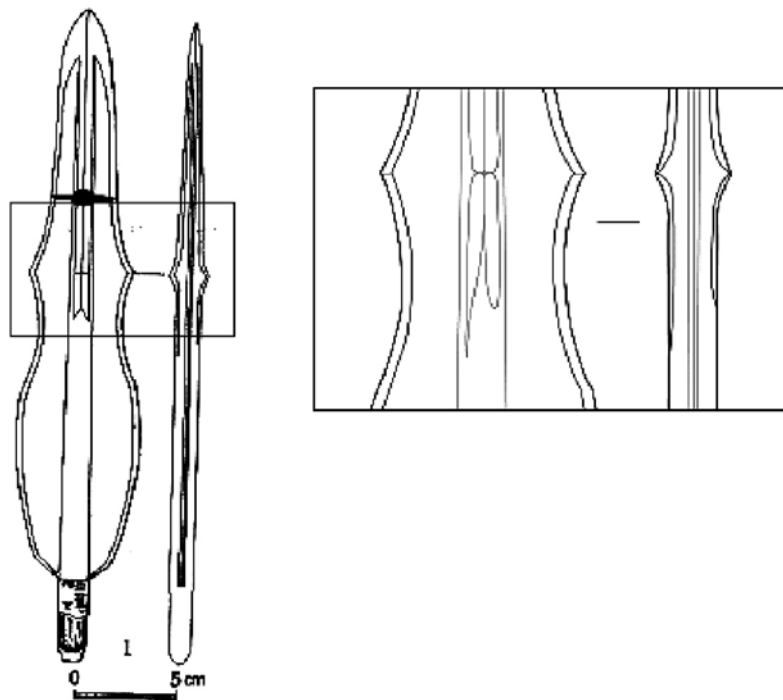
요령식동검은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전형적인 요령식동검의 특징은 척돌과 돌기부에 있다. 이것은 주조를 통해 일차적으로 형성되며 사용의 과정에서 마연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가공된다. 십이대영자를 비롯한 중국동북지역에서 출토된 전형적인 요령식동검은 날의 마연시에 등날도 함께 형성된다. 마연은 척돌과 돌기부를 기준으로 상하 2단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척돌아래에는 결입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즉, 척돌의 상하에는 I 식, 검엽에는 Ⅲ식의 마연방식이 적용된다.

단면 형태			
마연	방법등대와 날의 동시 마연(Ⅰ)	등대와 날 동시 마연 후 날만 재 마연(Ⅱ)	날만 마연(Ⅲ)

도면 1. 동검의 등대와 날의 마연 방법

이러한 요령식동검의 마연방법은 시기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요동이나 북한지역에서는 늦은 시기가 되면 척돌과 돌기부 없이 검신 전체를 한꺼번에 마연하여 직인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영남지역에서도 10여점 내외의 요령식동검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크게 2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돌기부와 척돌을 유지하면서 봉부쪽만 마연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2)검신 전체를 마연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1)의 경우는 요령식동검의 외형적 특징이 잘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척돌 하단부(결입부)는 물론 등대의 마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청도 예전리출토품과 같이 매납(제사)유적에서 발견되었다. 부여 송국리를 비롯한 남한지역에서 출토되는 요령식동검도 대부분 등날의 형성이 뚜렷하지 않



도면 2. 중국 동북지역의 요령식동검(조양 십이대영자)

〈영남지역 요령식동검 출토유적 표〉

유적명	출토유물	유적성격	참고문헌
김천 송죽리 4호 지석묘	동검 1	고인돌 외부	계명대학교박물관 2004
창원 덕천리	동검 1	고인돌 외부	이상길 1993
사천 이금동 C-10	동검 1	고인돌 내부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사천 이금동 D-4	동검 1	고인돌 내부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청도 매전면 예전리	동검 2	집석유구	김종철 1987
창원 진동리	동검 1	석관묘 내부	심봉근 1980
전 상주(무주)	동검 3		김원룡 1974
전 선산	동검 1		국립중앙박물관 1992
전 진주	동검 1		국립중앙박물관 1992
김천 문당동	동검	목관묘 내부	경북문화재연구원 2006

은 경우가 많다. 요령지역의 동검이 날과 함께 등날을 예리하게 갈아서 사용한 반면에 남한지역에서는 등날의 형성이 거의 없고, 특히 척돌 하단의 등날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요령지역의 청동기와 비교해 보면, 다른 공반유물의 차이와 함께 동검의 사용방식에도 차이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그 밖의 고인돌과 석관묘에서 출토되는 것은 대부분 2)의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창원 진동출토품은 검신의 형태가 석검과 같은 형태로 마연되어 있지만, 등날은 거의 마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창원 덕천리 출토 동검도 날만 갈아 사용하였다. 결국 영남지역의 요령식동검은 다른 남부지방과 마찬가지로 날만 주로

마연하는 Ⅲ식의 마연방법이 채용되어 등날의 형성이 거의 없다. 특히 척돌 하단의 결입부 마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¹⁾

또한 영남지역에서는 요령식동검의 부속구인 검파두식이나 검파는 공반되지 않는다. 청동기도 동축이 일부 확인될 뿐이다. 그리고 서남부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습베의 홈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영남지역의 요령식동검은 요령지역이나 북한지역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고, 서남부지역과 중부지역의 양 갈래에서 동검이 입수되었음을 시사한다.

3. 한국식동검문화의 초기양상

한국식동검은 요령식동검과 달리 주조에 의해 척돌을 만들지 않고, 등대를 갈아 결입부와 절대를 만든 점이 특징이다. 결입부의 마연방법은 요령식동검의 마연방법을 계승한 것이지만, 이러한 동검은 청천강이 남지역에서만 분포하고 있다.²⁾ 또한 결입부 하단도 마연함으로써 3단구분의 마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결국 요령식동검과 한국식동검의 근본적인 차이는 척돌과 절대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결입부의 깊이나 하단부의 마연여부는 검의 사용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기술적 또는 지역적, 시기적 속성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단적인 예로 예산 동서리나 아산 남성리유적에서 복수로 출토된 동검은 다양한 형태의 결입부와 결입부하단의 마연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지역에서도 다수의 한국식동검이 출토되고 있지만, 목관묘에서 철기와 공반된 경우를 제외하면, 공반관계나 출토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드물다. 합천 영창리유적에서는 수혈유구에서 동검이 출토되기도 하지만, 동검만 출토된 경우는 그 형태만으로 지역적인 관계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산청 백운리, 전상주출토의 동령세트, 경산 입당과 대구 서변동의 유견동부와 동사, 동탁, 입실리출토품으로 전하는 다뉴세문경 등은 서남부지역과 관련되는 유물임에 틀림없다. 그 중에 간두령과 다뉴경 등은 기원전후의 시기까지 잔존하기도 한다. 입주형의 석제검파두식은 주로 원형점토대토기와 공반되는 것으로서³⁾ 다른 지역에 비해 경주에서 다수 출토된 점이 주목된다.⁴⁾ 그렇지만 동검과 석제검파두식이 결합하여 출토된 경우는 경주 평리출토품이 유일하다. 그리고 서남부지역에 비해 거울이나 동령류, 동과, 기타 청동의기가 적고 동검만 주로 출토되는 현상은 특기할 만하다. 아마도 이러한 점은 석검사용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의 전통 때문일 것이고,⁵⁾ 이후 영남지역에서 청동제의 무기형의기가 발달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⁶⁾

1) 전선산 출토품만 예외적으로 결입부와 척돌의 상단부에 등날이 형성된 I 식 마연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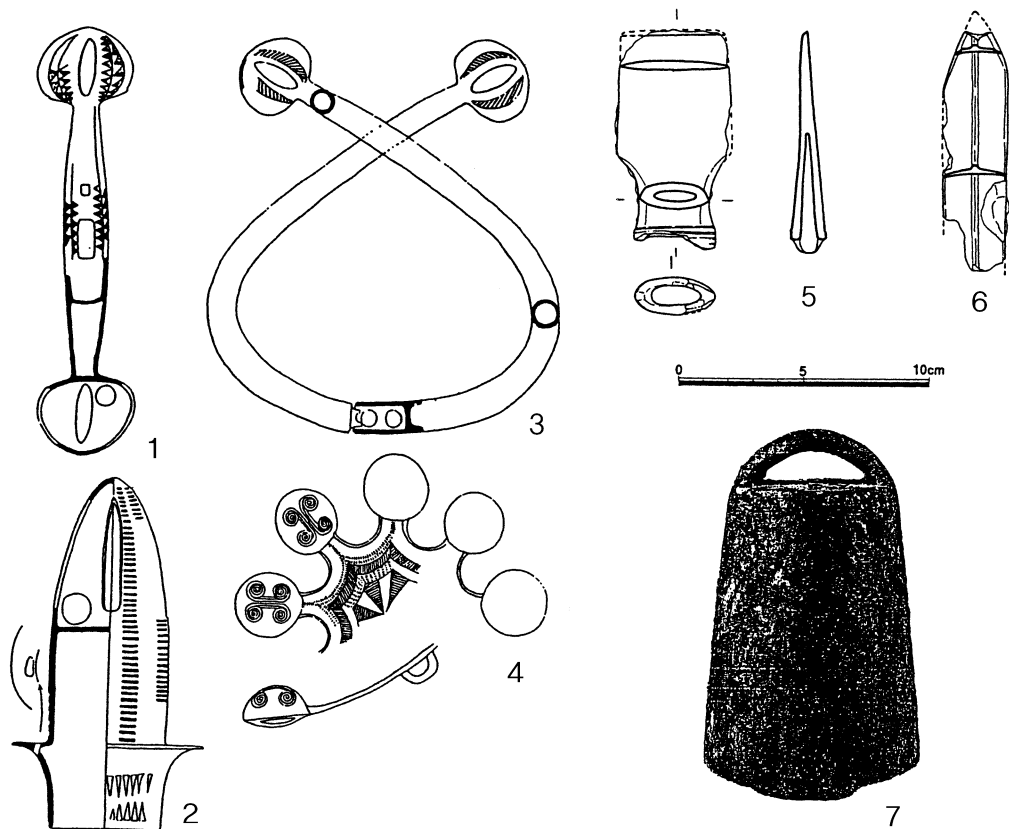
2) 한국식동검문화가 남한지역의 요령식동검문화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요령지역의 후기 요령식동검문화를 계승한 것이라는 이진무 견해의 타당성은 이러한 마연방법에서도 입증된다.

3) 강릉 송림리유적의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철광석제 입주형 검파두식이 출토된 바 있다.

4) 석제검파두식의 형태로써 지역관계를 논하기는 곤란하지만, 경주 출토품은 전라도 무안 화산동 및 경기도 파주군 상동서리출토품과 가장 가까운 형태이다.

5) 고인돌에 새겨진 석검 압각화도 무덤에 부장된 석검과 함께 의례에서 석검의 중요성을 말해주며, 남성을 상징하는 종교적 의미로 숭배하였다는 연구(송화섭 1994)도 있다. 그러한 압각화가 주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6) 청도 진라리, 대구 상인동, 김해 무계리, 부산 괴정동출토의 석검처럼 영남지역에서는 석검의 장식화, 장대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도면 3. 영남출토 서남부지역관련 청동기 (1~4:전상주, 5·6:임당FⅠ-42호, 7:임당EⅡ-4호 봉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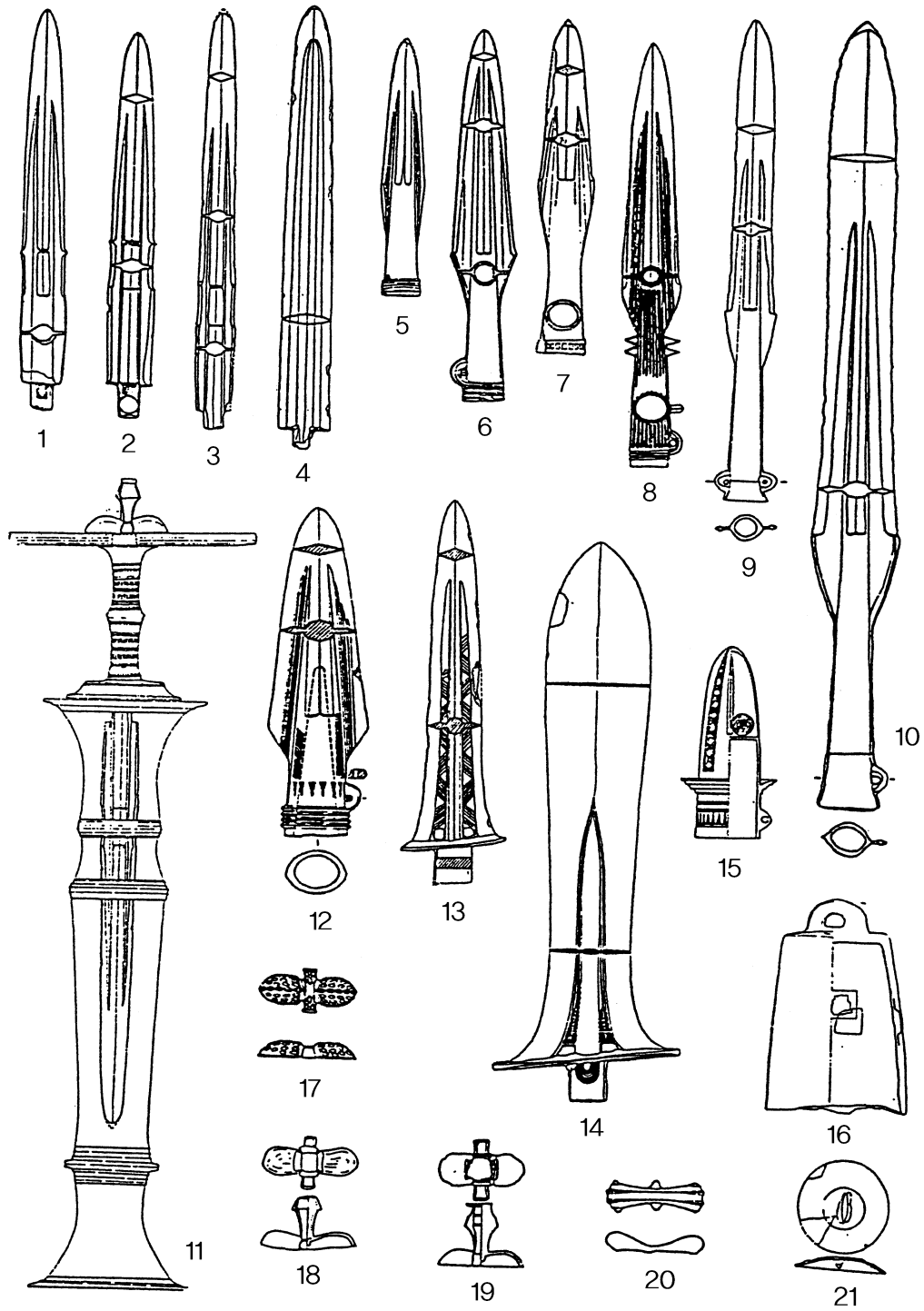
4. 철기 공반기의 청동기: 진·변한양식의 성립

고조선의 멸망과 낙랑군의 설치는 진·변한의 성장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고조선유민의 남하와 낙랑과의 교류 증대로 새로운 문물과 기술이 유입되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대표적인 변화는 철기문화와 함께 영남지역 특유의 청동기문화가 발전한 것이다⁷⁾. 그 특징은 한 또는 서북한(낙랑)지역에서 수입하거나 영향을 받아 제작한 문물의 양이 증가되었고, 영남지역 특유의 청동기가 제작되어 수량이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진 점이다.

먼저 한 또는 서북한지역과의 관련을 지니는 청동기는 수입품과 모방 또는 변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방품이나 변용품 중에는 고조선유민의 남하에 따른 결과물도 있겠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낙랑과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발전하여 그 구분은 사실상 어렵다. 중국의 한으로 부터는 거울과 대구, 동전, 노기 등이 수입되었고, 낙랑을 통해서도 말이나 밧 수레 부속구, 청동촉, 검초금구 등의 청동유물이 수입되거나 모방하여 제작되었다. 청동검이나 검초, 검파두식, 유문동과, 동모의 동근고리, 일부 청동기의 장식문양 등에서는 서북한지역(고조선 및 낙랑)이나 중국 등과 관련을 지니는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전시기에 유행했던 서남부지역의 요소가 잔존하는 경우도 있다. 경주 입실리유적의 다뉴세문경,

7) 영남지역의 철기문화는 서남부지역과 마찬가지로 낙랑설치 이전에 이미 개시되었을 가능성은 크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기원전 1세기부터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5,13:대구 팔달동 45호묘 2,6,17:대구 팔달동 100호묘 3,11,20:경주 사라리 130호묘 4,16:대구 평리동 7:사천 마도 8:경주 입실리 9,12:경주 안계리 10:대구 비산동 14:대구 만촌동 15,19,21:경주 죽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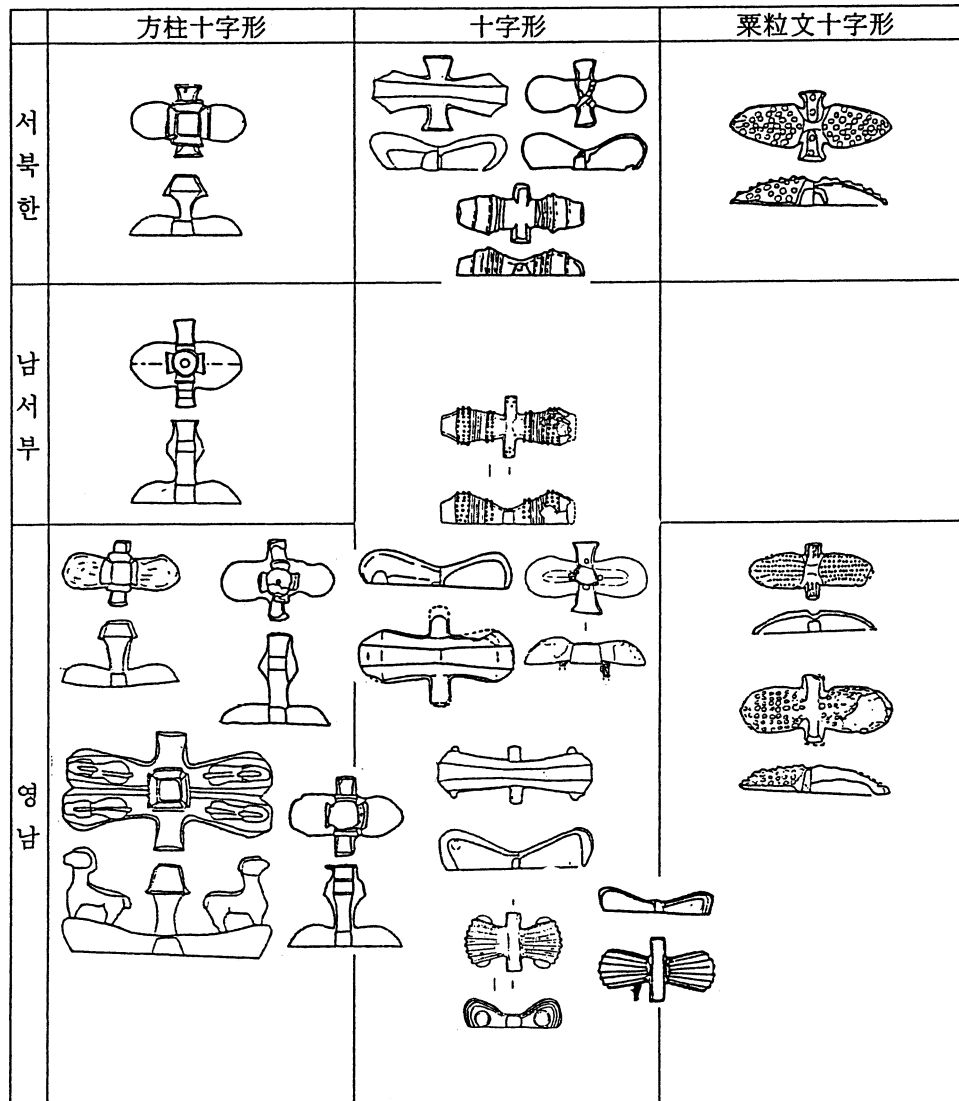
도면 4. 진·변한양식의 청동기

간두령, 검파두식과 신천동과 죽동리에서 출토된 간두령, 조양동 5호출토의 다뉴무문경 등은 서남부지역의 한국식동검문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영남지역에서는 기존 한국식동검문화의 전통과 새로운 한 및 낙랑, 북방

지역 문화의 이입으로 영남지역 특유의 청동기문화가 융성한다. 그 특징을 요약해보면 ①동검은 여러 조의 혈구가 형성되고, 결입부의 마연방식이 변화한다. 그리고 청동제의 검파두식과 검초금구, 검파 등이 결부된다. ②동모는 장대화하면서 투겁에 고리와 돌대가 형성된다. 여러 조의 혈구가 형성되거나 장식문양이 가미되기도 한다. ③동과도 혈구에 다양한 장식문양이 가미되거나 형태가 광대해지기도 한다. ④기타 동물 모양대구와 검파두식, 방제경, 동포, 각종 장식품 등에 독특한 형태의 청동기가 독자적으로 제작된다.

특히 영남지역 청동기의 중요한 특징은 동모와 동과를 중심으로 장식화, 광대화하여 의기로서의 무기가 발달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청동기시대의 석검과 석촉을 중심으로 한 무기형의기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한 및 낙랑, 주변지역에서 수입된 새로운 문화와 지역사회 내부의 전통적인 상징적 관념체계가 융화한 것이 청동의기가 발달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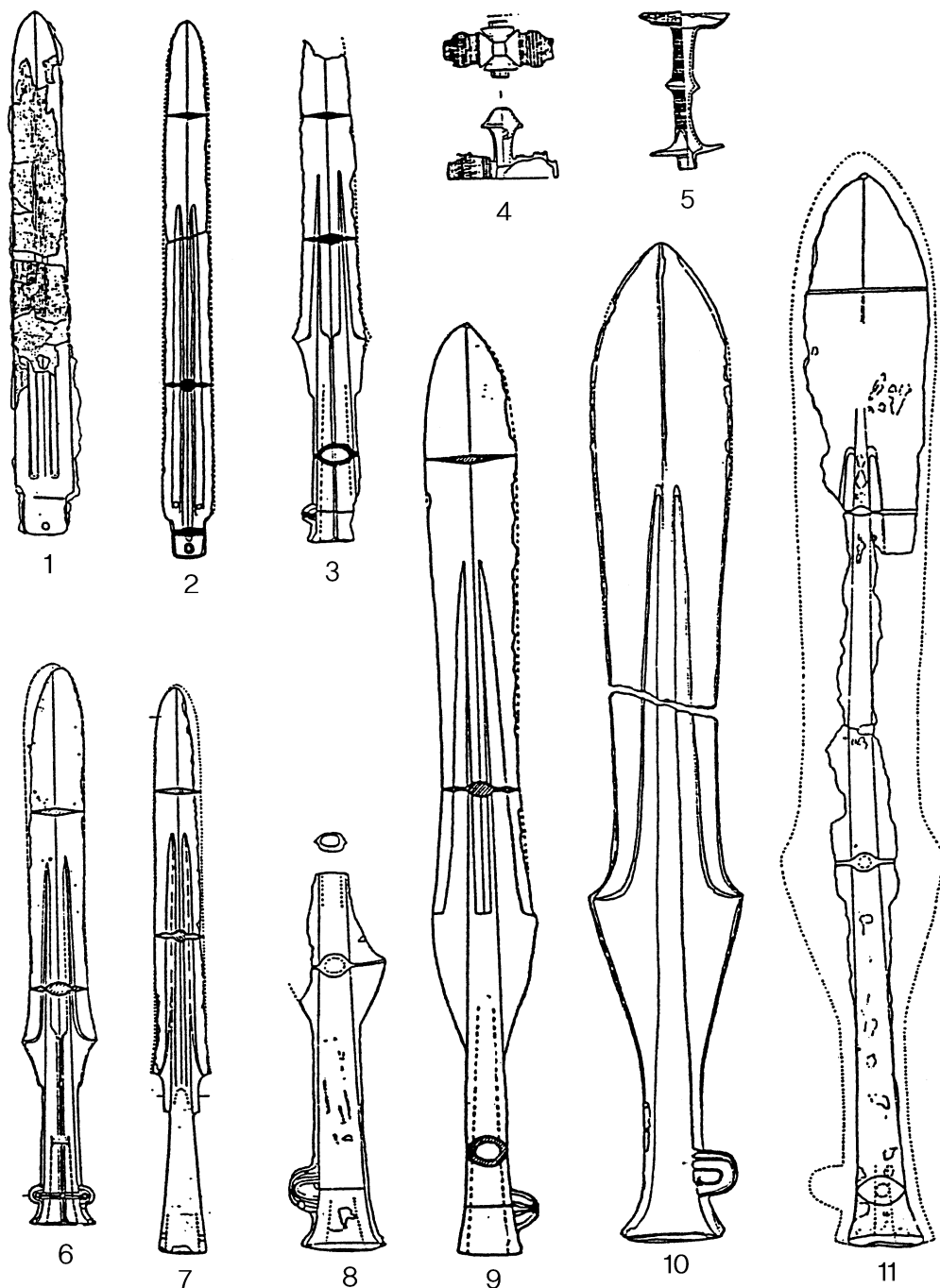


도면 5. 검파두식의 지역간 비교

5. 청동기의 쇠퇴와 김해

2세기중엽 이후 영남지역에서 목곽묘가 등장하면서 청동기문화는 일변한다. 즉, 기존에 청동기제작의 중

심지인 경북지역에서 청동기의 제작이 급격히 쇠퇴하고, 김해지역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고, 동시에 김해지역 특유의 청동기가 제작된다. 그렇지만 그 수와 기종에서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청동기의 기종은 동검과 검파, 동모, 방제경 등이 있다. 동검은 기존 대구와 경주지역에서 유행하던 청동제 검파가 지속되면서 결입부가 없는 편평한 형태로 변화하고, 동시에 청동제검파는 철검의 자루로도 사용된다. 동모도 장대하면서 관부가 2단으로 처리된 독특한 형태가 제작되는데, 현재 이러한 동모는 김해지역에서만 출토된



1:김해 양동 427호묘 2,3,6,7,9:전 김해 4,5:김해 양동 55호묘 8:고성 패총 10:김해 양동200호묘 11:김해 명법동

도면 6. 김해 출토 청동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제경은 경북지역의 소형방제경과는 달리 연호문방제경이 제작된다. 이것은 후한 경의 영향을 받아 연이 주류를 이루고, 와문, S자문, 추상문 등이 시문된다. 이들 방제경에 대해서는 왜경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많지만, 일본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도 있어 김해지역에서도 독자적으로 생산되었음이 분명하다. 다만, 김해와 일본지역이 서로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은 활발한 교류로 인해 유사품이 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왜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형동모가 김해와 고성지역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A.D 2세기 무렵부터는 왜계 청동기도 상당부분 김해지역에 수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동기제작의 중심지인 경북지역에서의 청동기가 급격히 쇠퇴하고 김해지역에서도 독자적인 청동기를 생산하면서 일정부분은 왜로부터 수입을 병행하였던 것은 교역관계의 변화에 따른 청동원료의 입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청동기의 생산이 중원계 기물의 수입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6. 맺음말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이루어지며, 대개 용융온도가 800-900도 내외이다. 그러므로 청동원료만 입수된다면 청동기의 제조 자체는 크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주석이 거의 산출되지 않으므로 고대의 청동원료는 외부에서 수입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청동기의 산지분석결과를 참조하면, 한반도에서 수입된 청동기를 사용하다가 시기가 늦어지면서 화북산, 화남산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수입된 초기청동기는 삼성퇴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와 납동위체가 일치하여 운남지역의 청동기를 원료로 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 어쨌든 경북지역에서 청동기가 성행하는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화북산의 청동원료가 수입되었고, 경북에서 쇠퇴하고 김해지역에서만 청동기가 생산되는 시기에는 화남산의 청동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원료산지의 변화는 중국내지의 청동원료 유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지만, 영남지역의 청동기 문화의 부침은 동경으로 대표되는 중국계 위신재의 수입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낙랑을 통한 중국과의 교역관계의 변화가 청동의기의 생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게다가 왜에서의 청동기입수와 청동기제작도 일정한 영향이 있었다. 즉, 기원후 1세기 무렵부터 영남내륙지역에서 한경의 수입과 청동기 제작이 쇠퇴하는 것과 왜에서 동경의 수입이 급증하고, 그와 더불어 대형의 청동의기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이 서로 연동하고 있다.

물론 영남지역에서 청동기가 유행하던 시기에도 왜에서 청동기가 생산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고, 활발한 교류로 인해 유사한 형태가 양 지역에서 동시에 제작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영남지역 특히 경북지역에서 청동기의 생산이 전성기를 이루는 시기에 나타나는 장대화한 청동의기를 왜계유물로 파악하는 견해⁸⁾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영남지역에서 청동기의 생산이 활발한 시기에 굳이 왜를 통해 이러한 유물이 수입되었을까는 의문점이 아닐 수 없다. 영남지역에서는 다호리나 용전리, 비산동유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원전 1세기 무렵에 청동무기의 장대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청동기시대 석검과 석촉의 장대화

8) 만촌동과 비산동 출토 동과, 다호리, 비산동, 용전리유적에서 출토된 장대화한 동모, 더욱이 중세형동모까지도 왜계유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현상을 계승하는 것이고, 그 출현연대도 왜 지역에 비해서도 결코 늦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장대화한 무기형의기는 영남지역이 그 원류이고, 일본지역에도 활발한 교류로 인해 거의 동시기에 전달되어 그 관념이 공유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마도지역출토의 야요이시대 청동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대마도에서는 야요이 전기에서 중기 초까지의 유적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이 중기후반이후에 해당된다. 특히 중기후반부터 후기전반시기에는 출토되는 청동기도 대부분이 영남지역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 시기는 영남지역에서 청동기의 생산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다. 대마도는 해류의 흐름으로 전남지역은 물론 부산·김해지역과도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서동이전에 나타난 낙랑에서 왜에 이르는 항로는 해류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런 항로라기보다는 영남지역에서 철기문화가 발전한 시기에 철 입수를 위해 개척한 인위적인 항로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해류를 이용한 자연스런 항로는 큐슈지역과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직항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점은 큐슈지역의 야요이 전기 청동기가 한반도 서남부지역과 관련되면서도 대마도에서는 동시기 유적이 형성되지 않은 점으로도 알 수 있다.⁹⁾

결국 영남지역에서는 한식유물의 수입축소와 함께 청동기의 제작이 쇠퇴하게 되고, 반면에 일본지역에서는 한경의 수입증대와 함께 청동기의 제작이 활발해진다. 이러한 배경에는 낙랑과 대방을 중개로 하는 동북아시아 교역망의 변화가 중요한 작용을 했고, 결국 청동원료의 입수조건이 청동기의 제작의 부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9) 이러한 현상은 3세기 이후 전라남도지역과 큐슈지역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嶺南地域青銅器文化の特質とその形成背景

李在賢
譯：宮里修

1. はじめに

韓半島の東南側に偏在する嶺南地域では紀元前 2 世紀頃から辰韓や弁韓と呼ばれる政治体が成長し、鉄器とともに独創的な青銅器文化を開花させた。この地域の青銅器については全体的な編年と展開様相に対する考察をはじめ、有文銅戈、銅矛、アンテナ式銅剣、動物形帯鉤、銅鏡などの個別遺物に対する研究が国内外で様々に行われている。ここでは既存の研究成果にもとづき、嶺南地域青銅器文化の特質と形成背景について対外関係を中心に概観してみよう。

2. 嶺南地域遼寧式銅剣の特徴

遼寧式銅剣は中国東北地域と韓半島に広く分布する。典型的な遼寧式銅剣の特徴は脊突と突起部にある。これは鑄造によって一次的に形成され、使用にともなう研磨によって二次的に加工される。十二台營子をはじめ中国東北地域から出土する典型的な遼寧式銅剣は、刃の研磨と同時に鎬が形成される。研磨は脊突と突起部を境界に上下 2 段に分けておこなわれ、脊突下には抉入部が形成される場合が多い。すなわち脊突の上下にはⅠ式、抉入部にはⅢ式の研磨方式が適用される。

〈銅剣の脊と刃の研磨方法〉

断面形態

研磨方法 脊と刃の同時研磨(Ⅰ) 脊と刃の同時研磨後、刃のみ再研磨(Ⅱ) 刃のみ研磨(Ⅲ)

このような遼寧式銅剣の研磨方法は時期や地域によっても違いをみせる。遼東や北韓地域では時期がくると脊突と突起部が失われ、剣身全体が一度に研磨され直刃化する傾向をみせる。

〈中国東北地域の遼寧式銅剣（朝陽十二台營子）〉

〈嶺南地域 遼寧式銅剣 出土遺跡表〉

嶺南地域においても 10 点余りの遼寧式銅剣が出土している。これらは大きく 2 つに区分でき、①突起部の脊突を維持しつつ鋒部側だけを研磨して使用するものと、②剣身全体を研磨して使用するものに分かれる。①の場合は遼寧式銅剣の外形的特徴がよく維持され、脊突下段部（抉入部）は勿論、脊の研磨もほとんどなされない。これらは清道礼田里出土品のような埋納（祭祀）遺跡で発見される。扶餘松菊里をはじめ南韓地域から出土する遼寧式銅剣は大部分、鎬の形成がはっきりしない場合が多い。遼寧地域の銅剣が刃と共に鎬を鋭利に研いで使用した一方で、南韓地域では鎬がほとんど形成されず、とくに脊突下段に鎬が形成されないことが特徴といえる。遼寧地域の青銅器と比較してみると相伴遺物が異なるとともに銅剣の使用法にも違いがあったことを示す。

一方、その他の支石墓や石棺墓から出土するものは大部分が②の場合に該当する。とくに昌原鎮東出土品は剣身の形態が石剣のように研がれているが、鎬の研磨はほとんど行われなかった。昌原徳川里出土銅剣も刃だけを研いで使用した。結局、嶺南地域の遼寧式銅剣は他の南部地方と同様に主に刃だけを研磨するⅢ式の研磨方法が採用され鎬はほとんど形成されない。とくに脊突下段の袂入部はほとんど研磨されなかった⁽¹⁾。

また嶺南地域では遼寧式銅剣の付属具である剣把頭飾も共伴しない。青銅器も銅鏃が一部確認されるのみである。そして西南部地域で特徴的にみられる茎の溝も有るものと無いものが共存する。これらの点からみると嶺南地域の遼寧式銅剣は遼寧地域や北韓地域とは一定の差異があり、西南部地域と中部地域の2系統から銅剣が入手されたことを示唆する。

3. 韓国式銅剣文化の初期様相

韓国式銅剣は遼寧式銅剣とは違い鑄造によって脊突をつくらず、脊を研いで袂入部と節帯をつくる点に特徴がある。袂入部の研磨方法は遼寧式銅剣の研磨方法を継承したものであるが、このような銅剣は清川江以南地域にのみ分布する⁽²⁾。また袂入部下段も研磨による3段区分が行われる。結局、遼寧式銅剣と韓国式銅剣の根本的な違いは脊突と節帯の違いにあるといえる。ところで袂入部の深さや下段部研磨の存否は剣を使用した結果であり、技術的または地域的、時期的属性とみるのは困難である。端的な例は礼山東西里や牙山南城里遺跡で、複数出土する銅剣には多様な形態の袂入部と袂入部下段の研磨が共存している。

嶺南地域でも多数の韓国式銅剣が出土しているが、木棺墓で鉄器と共伴した例を除くと、共伴関係や出土状況が分かる資料はごく稀である。陝川盆倉里遺跡では堅穴遺構から銅剣が出土するが、銅剣だけが出土した場合、形態だけで地域的な関係を知るのは困難である。ただ山清白雲里、伝尚州出土の銅鈴セット、慶山林堂や大邸西辺洞の有肩銅斧、銅鉞、銅鐸、入室里出土品と伝わる多鈕細文鏡などが西南部地域と関連する遺物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そのうち竿頭鈴や多鈕鏡は紀元前後の時期まで残存する場合がある。立柱形の石製把頭飾は主に円形粘土帯土器と共伴し⁽³⁾、他の地域に比べて慶州で多数が出土する点は注目される⁽⁴⁾。しかし銅剣と石製把頭飾の共伴例は慶州坪里出土品が唯一である。また西南部地域とは事なり鏡や銅鈴類、銅戈、その他青銅儀器が少なく銅剣ばかりが出土する現象は特筆される。これはおそらく石剣使用の伝統が強く残る地域の特徴であり⁽⁵⁾、その後嶺南地域で青銅製の武器形儀器が発達する要因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⁶⁾。

4. 鉄器共伴期の青銅器：辰・弁韓様式の成立

古朝鮮の滅亡と楽浪郡の設置は辰・弁韓が成長する重要な契機となった。古朝鮮流民の南下や楽浪郡との交流増大により、新たな文物と技術が流入した。その結果おこった変化の代表的なものは、鉄器文化とともに嶺南地域特有の青銅器文化が発展したことである⁽⁷⁾。漢または西北韓（楽浪）地域からの輸入や影響によって嶺南地域特有の青銅器が製作され、数や種類が著しく増加する点も特徴である。

まず漢または西北韓地域に関連する青銅器は輸入品と模倣、もしくは変容品に区分できる。模倣品や変容品には古朝鮮流民の南下によるものもあるが、その後もつづく楽浪との相互作用によって変化・発展したため、実際上の区分は困難である。中国の漢からは鏡や帯鉤、銅銭、弩機などが輸入され、楽浪からも馬具や車輿具、青銅鏃、劍鞘金具などの青銅遺物が輸入され、また模倣製作された。青銅剣や劍鞘、劍把頭飾、有文銅戈、銅矛の環耳、一部青銅器の装飾文様などには西北韓地域（古朝鮮および楽浪）や中国と関連する要素が多い。

一方、前時期に流行した西南部地域の要素が残存する場合もある。慶州入室里遺跡の多鈕細文鏡、竿頭鈴、劍把頭飾や、新川洞、竹東里から出土した竿頭鈴、朝陽洞 5 号出土の多鈕無文鏡などは西南部地域の韓国式銅劍文化要素といえる。

このように紀元前 1 世紀頃の嶺南地域では、既存の韓国式銅劍文化の伝統、新出の漢や楽浪、北方地域文化の移入によって独自の青銅器文化が隆盛となる。その特徴を要約すると、①銅劍には数条の血溝が形成され袂入部の研磨方式が変化する。そして青銅製の劍把頭飾と劍鞘金具、劍把などが組み合わされる。②銅矛は長大化し銚部に環と節帯が形成される。数条の血溝が形成されたり装飾文様が加味されたりする。③銅戈も血溝に多様な装飾文様が加えられたり形態が広大になったりする。④その他、動物文様帯鉤や劍把頭飾、仿製鏡、銅泡、各種装飾品など独特な形態の青銅器が独自に製作される。

とくに嶺南地域青銅器の重要な特徴として、銅矛や銅戈などの武器が装飾化・広大化して儀器として発達する現象が挙げられる。これは青銅器時代の石劍や石鏃を中心とする武器形儀器が時代の変化とともに変化・発展したものといえる。すなわち漢や楽浪、周辺地域から輸入された新たな文化と、地域社会内部の伝統的な象徴的觀念体系とが融和して青銅儀器が発達する背景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

〈弁・辰韓様式の青銅器〉

5. 青銅器の衰退と金海

2 世紀中葉以後、嶺南地域に木棺墓が登場すると青銅器文化は一変する。即ちそれまで青銅器製作の中心地であった慶北地域では青銅器製作が急激に衰退し、唯一命脈を保った金海地域では独自の青銅器が製作される。しかしながらその数や器種はかなり限定される。青銅器の器種には銅劍や劍把、銅矛、仿製鏡などがある。銅劍は大邱と慶州地域で流行した既存の青銅製劍把を維持しつつ袂入部がない扁平な形態に変化し、また青銅製劍把は鉄劍の柄としても使用された。銅矛は長大化するとともに関部分が 2 段に処理された独特の形態となり金海地域に限定されて出土する。倣製鏡は慶北地域の小型仿製鏡とは異なる連弧文倣製鏡が製作される。これは後漢鏡の影響を受け平縁が主流となったもので渦文、S 地文、抽象文などが施文された。これら仿製鏡は倣鏡と理解する傾向が強いが、日本地域でみることができない独特な形態もあり金海地域でも独自の生産をおこなったことが明らかである。金海と日本地域が相互に類似性を帯びるのは活発な交流の結果であろう。また倣で製作されたと推定される広形銅矛が金海や固城地域から出土するため、紀元後 2 世紀頃から相当量の倣系青銅器が金海地域に輸入されたとみられる。

このように青銅器製作の中心地であった慶北地域の青銅器が急速に衰退してから、金海地域が独自の青銅器を生産し、併行して倣からも一定量の輸入をしていたことは、交易関係の変化にともなう青銅原料の入手と関連すると考えられる。その理由はこうした青銅器の生産が中原系器物の輸入と密接に関わるためである。

6. 結語

青銅器は銅と錫の合金であり、おおよそ溶融温度が 800～900 度前後である。そのため青銅原料が入手されさえすれば、青銅器の製造自体はさほど難しい技術でないといえる。韓半島では錫がほとんど産出されないため古代の青銅原料は外部から輸入されたであろう。こうした事情は日本地域でも同じである。日本青銅器の産地分析結果を参照すると、まず韓半島から輸入された青銅器を使用し、時期が下るとともに華北産、華南産に替わっていったという。特に韓

半島から輸入された初期青銅器は三星堆遺跡から出土した青銅器と鉛同位体が一致しており、雲南地域の青銅器が原料であったという見解も提示されている。いずれにせよ慶北地域で青銅器が盛行した紀元前 1 世紀頃には華北産の青銅原料が輸入され、慶北が衰退して金海地域でのみ青銅器が生産された時期には主に華南産の青銅原料が使用された。こうした原料産地の変化は中国内地における青銅原料の流通と密接に関わるが、嶺南地域青銅器文化の浮沈は銅鏡に代表される中国製威信財の輸入と軌を一にしている。その点で、楽浪を経由した中国との交易関係への変化が青銅儀器の生産にも決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と推論できる。さらに倭における青銅器入手と青銅器製作も一定の影響がある。すなわち紀元後 1 世紀頃になって嶺南内陸地域で漢鏡の輸入や青銅器製作が衰退したことで、倭からの銅鏡輸入が急増するにともない大型の青銅儀器が大量に生産されたことが相互に連動している。

もちろん嶺南地域で青銅器が流行した時期に、倭でも青銅器が製作されていたことは否定できず、活発な交流によって類似した形態のものが両地域で同時に製作されたこともあり得る。しかしながら嶺南地域、なかでも慶北地域において青銅器の生産が全盛期を迎えた時期に出現した、長大化した青銅儀器が倭系遺物であるとする見解⁽⁸⁾については再考を要する。嶺南地域の青銅器生産が活発な時期にあえて倭からこれらの遺物を輸入したかどうか疑問がないでもない。嶺南地域では茶戸里や龍田里、飛山洞遺跡でみるように紀元前 1 世紀頃に青銅武器の長大化現象が現れる。これは青銅器時代の石剣と石鏃の長大化現象を継承したもので、その出現年代も倭地域に比べて決して遅くない。結局、長大化した武器形儀器は嶺南地域にその源流があり、活発な交流によって日本地域へもほぼ同時期に伝達されその觀念が共有されたものと考ええる。これに関しては対馬地域出土の弥生時代青銅器の示唆するところが大きい。即ち、対馬では弥生前期から中期初までの遺跡が極めて稀で、大部分は中期後半以後に該当する。中期後半から後期前半の時期には出土する青銅器の大部分が嶺南地域と関連し、この時期は嶺南地域での青銅器の生産が最も活発な時期である。対馬は海流の流れのために全南地域はもちろん釜山・金海地域とも直接つながらない。よって魏書東夷伝に現れた楽浪から倭にいたる航路は、交流の自然な流れによる航路というよりは嶺南地域で鉄器文化が発達した時期に鉄の入手のために開拓された人為的な航路といえる。海流を利用した自然な航路はむしろ九州地域と韓半島西南部地域の直航路である可能性が高い。それは九州地域の弥生前期の青銅器が韓半島西南部地域と関連するにも関わらず、対馬では同時期の遺跡が形成されない点からも分かる⁽⁹⁾。

結局、嶺南地域では漢式遺物の輸入縮小とともに青銅器の製作が衰退し、その一方、日本地域では漢鏡の輸入増加とともに青銅儀器の製作が活発となる。この背景には楽浪と帯方に媒介される東北アジア交易網の変化があり、つまりは青銅原料の入手条件が青銅器の製作の浮沈と密接に関連したことが分かる。

- (1) 伝善山出土品のみ例外的に挾入部と脊突の上段部に鎬が形成された I 式研磨がなされた。
- (2) 韓国式銅剣文化が南韓地域の遼寧式銅剣文化ではなく、遼寧地域の後期遼寧式銅剣文化を継承したとする李健茂の見解の妥当性はこれら研磨方法からも立証される。
- (3) 江陵松林里遺跡の住居址から円形粘土帶土器と鉄鋌石製十字形剣把頭飾が出土している。
- (4) 石製剣把頭飾の形態から地域関係を論じるのは困難であるが、慶州出土品は全羅道務安花山洞および京畿道坡州郡上読書里出土品にもっとも形態に近い。
- (5) 支石墓に刻まれた石剣岩刻画は墓に副葬された石剣とともに儀礼における石剣の重要性を示しており、男性を象徴する宗教的意味で崇拝したとする研究（ソンファソプ 1994）もある。そのような岩刻画が主に嶺南地域を中心に分布することも注目される現象である。
- (6) 清道陳羅里、大邸上仁洞、金海茂溪里、釜山槐亭洞出土の石剣のように嶺南地域では石剣の装飾化、長大化現象が目立っている。
- (7) 嶺南地域の鉄器文化は西南部地域と同様、すでに楽浪設置以前から始まっていた可能性が高い。しかしながら本格的な発展は紀元前 1 世紀からである。

- (8) 晩村洞と飛山洞出土の銅戈，茶戸里，飛山洞，龍田里遺跡から出土した長大化した銅矛，さらに中細形銅矛までもが倭系遺物とする見解がある。
- (9) こうした現象は 3 世紀以後の全羅南道地域と九州地域との関係にも現れる。

